

중국 섬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제주관광 발전방향

정 기 은*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 II. 125규획 중국 관광정책 및 발전방향 | |
| III. 중국 주요 섬관광자원 개발현황 | <참고문헌> |

<국문 초록>

한국관광 1등섬 제주도는 최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레길, 저가항공 도입 등의 여건 개선과 함께 상당한 국내외 시장호응을 불러일으키며, 2010년 한해에는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약 758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외국관광객이 73만 명, 그 가운데 56%인 약 40만 명이 중국관광객으로 제주관광 외국인 가운데 2명중 1명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제주관광발전의 절대적인 제1의 외래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125 관광규획에 따른 중국정부의 관광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최근 정책흐름과 주요 발전추세 등을 고찰하고, 나아가 섬관광지역으로써 제주도의 주요 경쟁시장인 중국 내 해남도(海南島) 및 평담도(平潭島)를 중심으로 중국의 최근 섬관광자원 개발 정책 및 발전계획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제주도의 대중국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광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부기관 및 업계에 합리적이고 유효한 중국관광마케팅정책 수립토대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제어 : 125규획, 중국관광시장, 중국섬관광자원, 해남도, 평담도, 제주관광발전

*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I.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유럽과 미국발 재정위기로 인한 전지구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1인당 GDP 3000\$ 시대로 진입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바야흐로 중국은 작금의 침체된 글로벌경제 현실에 가장 필요한 ‘소비시장’을 제공해주며 일본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미·중 천하쌍웅(G2)으로 등극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앞으로 세계시장의 절대적인 영향력이자 중심으로서 역할이 지대해지고 있으며 관광시장의 경우에는 더욱이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윈바오(溫飽)’ 시대에서 더 나은 생활환경과 삶의 질 등을 추구하는 ‘샤오강(小康)’ 시대로 소비트렌드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규획(十二五規畫: 2011~2015년)기간에는 소강사회(小康社會)의 안정적인 발전에 따라 1인당 평균 소비수준도 점차 증가할 것은 물론 소비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국민소비구조가 기존 생계형소비구조에서 문화생활향유 등의 선택형소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는 최근 중산층 내수소비진작 정책을 통한 중국 경제연착륙의 기조와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관광시장 발전측면에서 중국은 현재 국민 1인 년1회 관광 목표를 막 도달한 수준이나,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국민들이 연평균 7회 이상 관광을 한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민의 관광소비에 대한 수요는 더욱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공휴일·주말휴일·유급휴가 등 휴가제도 역시 중진국 수준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거대한 관광소비시장은 “12·5”규획기간 동안 더욱 신속하게 발전하여 관광은 이제 국민생활의 기본내용일 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의 수요가 될 것이다.

한국관광 1등섬 제주도는 최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레길, 저가항공 도입 등의 여건 개선과 함께 상당한 국내외 시장호응을 불러일으키며, 2010년 한해에는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약 758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외국관광객이 73만 명, 그 가운데 56%인 약 40만 명이 중국관광객으로 제주관광 외국인 가운데 2명중 1명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제주관광발전의 절대적인 제1의 외래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제주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향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향후 ‘제주관광비전 2020플랜’의 목표인 1700만명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수입 10조원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국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12·5 관광규획에 따른 중국정부의 관광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최근 정책흐름과 주요 발전추세 등을 고찰하고, 나아가 섬관광지역으로써 제주도의 주요 경쟁시장인 중국 내 해남도(海南島) 및 평담도(平潭島)를 중심으로 중국의 최근 섬관광자원 개발 정책 및 발전계획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제주도의 대중국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광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부기관 및 업계에 합리적이고 유효한 중국관광마케팅정책 수립토대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최근 발표된 중국 국무원 및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의 정책자료와 해남성(海南省) 및 평담현(平潭县)의 관광관련 통계 및 정책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문헌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발간된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서적 및 인터넷 관련페이지 등을 참고하였다.

II. 12·5규획 중국 관광정책 및 발전방향

2011년은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十二五規畫: 2011~2015년)이 시작되는 첫 해이자 ‘고속성장, 선부론, 양적 성장’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공동성장, 균부론, 질적 성장’으로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개혁개방이래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의 심화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경제구조 고도화 및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형 전환, 그리고 서비스산업 발전 가속화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한 정책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12·5규획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2015년까지 3차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 대비 47%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을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핵심산업으로 규정하며 그 발전적인 역할을 독려하고 있다.

1. 12·5규획 관광산업 발전목표

제12차 5개년 관광발전규획의 목표는 2015년까지 관광시장의 규모를 진일보 확대하여, 국내관광객 33억명, 연평균 10%씩의 성장을 도모하고, 입국관광 숙박관광객수 6630만명을 유치하며 연평균 8%의 성장을 추진한다, 출국관광객은 8375만명, 연평균 9%의 성장을 유지한다.

관광소비를 확대하여 2015년까지 도시주민 연평균 2회 이상의 관광활동을 하고 관광소비가 주민소비 총량의 10%를 차지하도록 노력한다. 경제사회효익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서 관광업 총수입은 연평균 12%이상 성장하고, 관광산업 부가가치액의 GDP비중 4.5%로 제고하며, 서비스업 부가가치액의 비중은 12%로 증대한다. 또한 기간 중 관광산업분야에서 매년 7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관련 서비스수준을 현격히 제고시키고 시장질서를 확연히 호전시키고 지속발전가능 역량 등을 강화하여 2020년에는 중국의 관광산업 규모와 품질과 효익방면 공히 세계적인 관광강국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힘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中国国家旅游局, 2011)



[그림 II-1] 12.5규획기간 중국 관광산업 발전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자료 : 중국국가여유국 홈페이지(www.cnta.gov.cn) 참조구성

2. 주요 관광정책: 10대 중점과제

12.5규획의 발전목표에 따른 관광산업의 발전비전은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핵심산업으로의 발전과 인민대중에게 더욱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선진적인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다. 12.5규획의 주요 관광정책은 기본적으로 2009년 12월 1일 국무원(国发41号) 에서 발표한 “

관광산업의 가속 발전에 대한 의견(国务院关于加快发展旅游业的意见)”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10대 중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산업의 개혁개방 심화: 1)관광업 진입을 위한 관련 심사 및 비준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광산업 및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업종 간 지역 간 장벽을 타파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자본 유입이 공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민간 및 중소형 관광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며 나아가 이종 관광업, 지역 간 그리고 국유 및 민간소유 기업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합종연횡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형관광그룹을 육성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다국적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3)외국자본관광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외상투자여행기업의 중국민 아웃바운드여행업 경영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둘째, 관광소비환경의 개선:1)관광객평가 위주의 관광목적지평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관광지 입장요금 변동은 6개월 전 공표함은 물론 모든 관광관련 요금징수는 규정에 의하고, 노인 및 학생 등 특수계층에 대한 입장료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3)관광목적지와 주요 관광객송출지간의 항공노선 및 관광열차 등을 증설하고, 관광열차의 열차표 예매 및 타지구매 방법 등을 개선한다. 4)박물관·금융서비스망·우편서비스망 등 관련시설의 관광성수기 업무시간 연장 등을 실시한다. 5)각종 경영시설의 화장실을 관광객에게 개방하도록 한다. 6)관광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TV·라디오·잡자온라인 포털사이트 등 공공매체에 관광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개설하여 관광공익홍보 및 선전을 강화한다.

셋째, 교양을 갖춘 건전한 여행방식의 제창: 1)전사회적으로 교양을 갖춘 건전한 여행활동을 제창함으로써 중국민의 지식과 전문의 확대, 정서의 함양에 힘쓴다. 2)주요 관광지외 호텔 여행사 등 관광기업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객 한사람, 한사람이 《中國公民國內旅遊文明行為公約(중국국민국내여행문명행위공약)》과 《中國公民出境旅遊文明行為指南(중국민출국관광문명행위지침서)》에 따라 건전한 여행과 소비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3) 특히, 출국여행자들이 국외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넷째, 관광기초인프라건설의 가속화:1)관광도로중점건설. 관광지주차장·관광서비스센터·관광안전 및 자원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광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한다. 2)관광지 공중화장실의 개선 및 확충, 주요 경관지와 인접지역과의 간선도로 확충, 관광시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수로 및 여객터미널 건설, 중서부지역 지선공항 건설, 중점도시내 관광객 안내 및 교류센터 건립 가속 추진한다. 3)12.5규획기간을 통하여 전국 모든 A급 풍경지구 내 교통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주차장 등의 시설수준이 표준에 도달하도록 힘쓴다.

다섯째, 관광상품의 다양한 발전 추진: 1)농촌관광부민사업(鄉村旅遊富民工程)의 실시, 농

촌관광 및 관광체험활동의 개발, 원주민촌, 古村古邑 등 특색 경관이 있는 관광촌 개발, ‘농악(農家樂)’을 발전시키고, 휴양농원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2) 국가급 문화자연유산지 등을 중심으로 대표적이고 수준 높은 경관지를 개발한다. 3) 여가휴양관광을 적극 발전시키고 도시주변에 휴가리조트지역 건설을 주도하고, 국가급 관광리조트시설의 건립을 추진한다. 4) 골프장 및 대형 테마파크의 발전과 Red-Tourism(紅色旅遊)의 발전을 지속한다.

여섯째, 새로운 관광소비 이슈 창출: 1) 관광과 문화·체육·농업·공업·임업·상업·수리·지질·해양·환경·보호·기상 등 관련 산업과 업계 간의 융합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일정정도 조건을 갖춘 지역의 생태관광·산림관광·상무관광·공업관광·의료건강관광·요트 및 크루즈관광 등의 발전을 추진한다. 2) 캠핑카, 크루즈요트, 경관지 케이블카·리프트 등의 식도, 오락시설 및 디지털관광 안내시설 등 관광장비제조업을 국가장려산업목록에 진입시키고,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지닌 레저등산·스키·잠수·캠핑·탐험·골프 등 야외활동용품 및 호텔 전용용품을 육성 발전시킨다. 3) 관광쇼핑 발전을 힘쓰고 특히, 관광상품과 관광기념품의 소비비중을 제고한다. 4) 대형국제전시회, 주요 문화활동과 스포츠대회를 플랫폼으로 삼아 새로운 관광소비 이슈와 포인트를 창출한다.

일곱째, 관광서비스 수준의 제고: 1) 관광객 만족도를 기준으로, 《관광서비스품질제고요강(旅遊服務質量提升綱要)》을 전면 실시하고, 관광종사자들의 서비스의식과 수준을 제고한다. 2) 서비스관리의 브랜드화를 지향하여, 전문관광관리회사의 브랜드체인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광서비스 혁신을 촉구한다. 3) 표준화를 수단으로, 건전한 관광표준체계확립을 위하여, 관광·환경·위생·여행·안전·에너지·절약 등의 표준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특히, 식음료·숙박·화장실의 위생품질을 중점 관리한다. 4) 정보화를 주요경로로, 관광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한다. 5) On-Line 상의 관광서비스·마케팅·예매·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디지털센터·콜센터 등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기업과 경관지, 중점관광도시 등의 관광정보서비스 수준을 전면제고한다.

여덟째, 관광산업의 문화역량 강화: 1) 관광의 일련 과정, 먹거리·볼거리·잠자리·살거리 등 전 과정에 문화내함(內涵)과 역량을 강화한다. 2) 관광상품의 문화창의수준을 높이고, 식음료·방면 또한 문화특색을 강화한다. 3) 우수한 문화자원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방특색 및 민족특색을 지닌 공연·축제 등 문화관광상품을 적극 창출한다. 4) 박물관·기념관·체육관 등의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문화체육관광활동을 전개한다. 5) 집중적으로 중국 국가관광 총체적인 이미지를 수립하여 문화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킨다.

아홉번째, 에너지절감 및 녹색성장의 추진: 1) 관광분야의 에너지절약·절수 및 배수처리사업을 실시한다. 호텔·관광지·농촌관광경영주 및 기타 관광경영조직들이 신에너지재료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에너지원에 대한 합동관리, 조명에 대한 효율적 개선, 온실가스 배출감소

등을 통하여 녹색환경보호기업을 강화한다. 2)5년 내 성급호텔A급경관지의 전력 및 용수량의 20%를 절감하고, 관광지수용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광항목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저탄소관광방식을 창도해 나간다.

열번째, 지역 및 권역별 관광협력발전의 촉진: 1)중서부 및 변강(边疆)민족지역은 자연·인문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한다. 2)동부발전지역과 동북노후 공업지역은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하여 관광발전수준을 향상시킨다. 3)상그릴라·실크로드·장강 삼협·청장철도연결지역·동북노후공업기지역·환발해권역·장강중하류지역·황화중하류지역·주강삼 각지역·해협서안(海峽西岸)·북부만지역 등 광역권역별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교통체계·정보통신 및 서비스네트워크를 개선한다. 4)해남도국제관광섬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5)중국 내륙국민의 홍콩 및 마카오관광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대륙대만(海峽兩岸)과의 관광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

Ⅲ. 중국 주요 섬관광자원 개발현황

중국 당(黨)중앙과 국무원은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지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2009년 《관광산업가속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인 지지 토대를 제공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5개 국가급 중대경제개발지역의 관광산업은 해당 중대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실행전략이 되고 있다.

25개 국가급 전략지역개발지역에서도 특히 ①해남성국제관광섬건설, ②광서성계림국가관광 종합개혁실험지건설, ③영하(寧夏)서부차별화된 관광목적지건설, ④복건성해협서안(平潭島)자연및문화관광중심지건설, ⑤티베트(西藏)국제관광명소건설, ⑥신강(新疆)중국중요관광목적지건설 등을 주요 관광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전략은 12.5규획기간 동안 건설 및 성숙 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부양대책으로서 더욱더 정교한 정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이 지역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하는 지역, 특히 해남성(海南省) 해남국제관광섬건설 및 해협서안의 복건성 평담도(平潭島)자연및문화관광중심지건설을 중심으로 중국의 섬관광자원 개발정책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주도의 대중국 관광시장에 대한 발전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해남도(海南島) 관광산업 발전계획 및 추진현황

해남도(공식행정명칭: 海南省)는 중국 최남단에 위치하며 18개 시현(市县) 및 서사(西沙)·남사(南沙)·중사(中沙) 군도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말 현재 인구는 약 867만명이며, 면적은 약 33,920km²로 중국대륙에서 가장 큰 섬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18배에 달한다.

진(秦)시대부터 중국내 행정구역에 편입되어온 해남도는 원주민인 여족(黎族)·묘족(苗族)·회족(回族) 등 소수민족과 한족(漢族)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온 다채롭고 독특한 민족풍속과 지방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해남성은 개혁개방이후, 특히 1988년도에 경제특구(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인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현재에는 고속성장의 단계에 진입하였다.

1) 관광산업 개요

(1) 해남도 관광산업의 기본 현황

해남성 여유국(旅遊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해남도 방문객 중 24시간이상 체류관광객(過夜遊客)수는 2587.34만 명으로 전년대비 14.98% 증가하였으며, 그 중 국내관광객수는 2521.03만 명이고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66.31만 명이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14.84%, 20.24% 증가한 수치이다. 해남성 전체의 관광수입은 257.63억원에 달하고 전년대비 21.68% 성장하였다. 그 중 국내 관광수입은 235.61억, 전년대비 22.19%, 인바운드 관광수입은 22.02억, 전년대비 16.49%로 상승하였다.

〈표 III-1〉 2010년 해남성 관광시장 및 접객현황

항목	2010년	전년대비 성장률(%)
1. 24시간이상 체류 관광객(만 명)	2587.34	14.98
(1)국내관광객	2521.03	14.84
(2)인바운드관광객	66.31	20.24
a. 외국인	47.38	27.33
b. 홍콩동포	11.33	-6.98
c. 마카오동포	0.79	41.07
d. 대만동포	6.81	30.96
2. 인바운드 관광수입(만\$)	32227.65	16.49
3. 국내 관광 수입 (억원)	235.61	22.19
4. 관광 총 수입(억원)	257.63	21.68
5. 객실사용률(%)	60.37	1.51증가

자료 : 海南旅游政务网(<http://tourism.hainan.gov.cn>)

2010년 말까지 해남성내 관광호텔은 총 459개이며, 이 가운데 5성급 호텔은 세계적 체인 20개를 포함하여 총 21개이며, 국가 A등급관광지가 36곳, 여행사는 301개(국제 여행사 14개)가 있으며, 관광 종업원은 18만 명, 관광가이드 12,000여 명 등이 종사하고 있다.

2010년 해남성 1,2,3차 산업비율은 각 26:28:46이고, 이 중 3차 산업의 증가치는 946억원에 달하며 이는 해남성 GDP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무원 '44호문건'에서 제기한 2015년 지역생산총가치 중 제3차산업 비중을 47%이상으로 한다는 목표에 이미 근접한 수준이다.

또한 국가여유국 『2010년 인바운드관광객 설문조사(2010年入境遊客抽樣調查結果)』 결과에 따르면 해남성 인바운드관광객 1인당 1일평균소비액이 \$173.31로서, 이는 광서(廣西)지역의 \$184.23보다는 낮고 광둥(廣東)지역의 \$165.54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海南旅遊政務網, 2011)

2) 해남도 관광산업의 주요 특징

최근 해남도 관광산업 및 시장의 주요한 발전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급 호텔들의 집적지: 해남도에는 국제적인 특급 체인호텔 20개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5성급호텔이 있다. 특히 해남도의 핵심관광도시인 삼아(三亞)시 아룽만(亞龍灣)에는 인터콘티넨탈호텔(Intercontinental)·메리어트호텔·힐튼호텔·아코르호텔(Accor)·스타우드(Starwood)호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12개 브랜드, 13개 호텔이 있다. 이외에도 해당만(海棠灣)지역에 22개의 특급호텔을 건립중이며 이 중 힐튼메리어트·힐튼콘라드리조트호텔 등은 이미 완공되었으며, 20억원(한화 약 3600억)을 투자한 6성급 홍수림페어몬트호텔&리조트(紅树林費尔蒙度假酒店)가 건설 중에 있다.

둘째, 요트산업의 급속한 발전: 최근 해남성 정부 주도하에 『해구(海口)요트산업경제포럼』이 삼아해천그룹의 요트전시를 비롯한 럭셔리라이프스타일 등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현재 해남도에는 요트 110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구만미원(海口灣美源)마리나, 146척 정박 가능한 신부도(新埠島) 및 아홍주국제요트회(亞鴻洲國際游艇會)에서 건설한 72척 정박 규모의 마리나시설 등 총 330척 정박 규모의 마리나시설이 집중 건설되어 있다.

셋째, 크루즈산업의 기본규모 완성: 해구(海口)시에는 현재 7만 톤급의 크루즈 정박항구가 있으나 향후 10만 톤급의 국제크루즈터미널로 개보수 예정이다. 2006년에는 삼아시 봉황도에 1기 8만 톤급의 크루즈선착장 및 개보수빌딩을 건설했다. 삼아시는 현재 상해 다음으로 크루즈 운항편이 제일 많은 항구이기도 하다.

넷째, 골프관광 특화 관광지: 해남성에는 현재 24개의 골프클럽이 있고 이 가운데 아룽만

해경골프CC(亚龙湾海景高尔夫), 칠선령산지골프CC(七仙岭山地高尔夫), 해구관란호화산암골프CC(海口观澜湖火山岩高尔夫) 등 특색 있는 골프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구관란호 지역의 10개의 18홀 골프클럽은 2010년 제56회 세계골프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제57·58회 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해남성은 향후에도 산자·호수·삼림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골프관광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海南省旅游发展委员会, 2011)

〈표 III-2〉 2010년 해남성 관광호텔접객 외래관광객 현황

국가및지역	관광객수 (명)	전년대비 (%)	국가및지역	관광객수 (명)	전년대비 (%)	국가및지역	관광객수 (명)	전년대비 (%)
총계	425,072	39.43	미얀	136	700.00	스페인	1,549	24.32
아시아소계	160,058	29.35	북한	374	-82.56	기타	1주476	19.20
일본	24,786	-9.81	파키스탄	207	-5.48	미주소계	33,823	38.63
한국	31,737	33.31	기타	10,966	8.32	미국	22,375	35.06
몽골	924	62.68	유럽 소계	204,023	64.10	캐나다	7,930	38.66
인도네시아	3,902	39.11	영국	6,397	-9.46	기타	3,518	66.57
말레이시아	27,544	27.37	프랑스	8,138	24.40	대양주소계	9,753	23.97
필리핀	3,025	86.04	독일	17,127	42.61	호주	7,327	20.19
싱가포르	47,555	70.94	이탈리아	3,193	19.36	뉴질랜드	1,074	41.88
태국	5,051	52.14	스위스	3,100	86.63	기타	1,352	33.33
인도	2,417	62.32	스웨덴	2,632	25.15	아프리카소계	3,248	19.06
베트남	1,434	105.15	러시아	14,841	86.16	기타 소계	1,4167	34.97

자료 : 海南旅游政务网(<http://tourism.hainan.gov.cn>)

한편 해남성 통계국의 『2011년 삼아시(三亚市) 춘절황금연휴관광시장 표본조사(2011年三亚市春节黄金周旅游市场抽样调查报告)』에 따라 2011년 2월 3일부터 2월 8일 기간동안 삼아시 국내관광객 방문객 현황을 송출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둥성 관광객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수치이다. 북경시 관광객은 7.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1% 감소하였고, 사천성 관광객은 7.7%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호남성 지역의 관광객은 5.4% 전년대비 0.3% 증가를 보였다. 이외 절강관광객이 5.4%로 나타나고, 전년대비 0.4%를 감소했다.

이처럼 해남성 삼아시 국내관광객의 송출지역을 살펴보면 해남성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둥·광시·호남성의 관광객이 21.5%를 차지하고 이는 전년보다 7.2%를 증가된 수치이다. 전통적인 중국 관광송출지역인 북경·상해·광둥성의 관광객은 24.5%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4.9%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동북3성(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의 관광객은 오히려 3.9% 감소를 나타냈다.

〈표 III-3〉 『2011년 삼아시(三亚市) 춘절황금연휴관광시장 표본조사

“춘절”황금연휴기간 해남도 방문 국내관광객 시장점유률			(단위: %)
省(市, 区)	2011년	2010년	증가/감소
광둥성(广东省)	13.1	7.1	6.0
북경시(北京市)	7.7	7.8	-0.1
사천성(四川省)	7.7	6.0	1.7
호남성(湖南省)	5.4	5.1	0.3
절강성(浙江省)	5.4	5.8	-0.4
호북성(湖北省)	5.0	4.0	1.0
강소성(江苏省)	4.7	5.8	-1.1
하남성(河南省)	4.1	6.1	-2.0
해남성(海南省)	3.9	1.7	2.2
상해시(上海市)	3.7	4.7	-1.0
중경시(重庆市)	3.4	2.5	0.9
산둥성(山东省)	3.1	3.9	-0.8
하북성(河北省)	3.1	3.5	-0.3
광서(广西壮族自治区)	3.0	2.1	0.9
흑룡강(黑龙江省)	2.7	4.2	-1.5
길림성(吉林省)	2.0	2.5	-0.5
복건성(福建省)	1.9	0.7	1.2
운남성(云南省)	1.9	1.7	0.2
요녕성(辽宁省)	1.6	3.5	-1.9

자료 : 海南省统计局(<http://www.hi.stats.gov.cn>)

또한 삼아시의 2011년 국내관광객을 방문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목적이 67.4%로 전년대비 5.5% 증가했으며, 휴양및레저목적은 29.4%로 전년대비보다 3.8% 감소하였다. 친척방문과 비즈니스 목적이 각각 2.3%와 0.5%를 차지하였으며, 회의참가 및 문화교류 등 기타가 0.4%로 나타남으로써 삼아시가 명실상부한 중국인의 관광휴양목적지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관광객 중에서 처음 삼아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49.3%를 차지하였으나, 작년보다는 2.5%를 감소했다. 2회 이상 삼아시를 재방문하는 관광객은 50.7%로 작년보다 2.5%를 증가했다. 관광방식을 보면 국내 개별관광객이 1.5% 감소를 보였으나, 전체 관광객의 과반수인 64.6%를 이룰 정도로 삼아시에서 중요한 관광시장이다. 한편, 단체관광객이 35.4%로 나타났다.

2. 해남성 국제관광섬건설 발전규획(2010-2020)

2009년 12월 《국무원해남국제관광섬건설발전예관한약간의의견(国务院关于推进海南国际旅游岛建设发展的若干意见)》이 정식 발표되어 해남성 국제관광섬건설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

로 그 정책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해남성은 새로운 역사적 발전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8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식으로 《해남성국제관광섬건설발전규획개요 2010~2020(海南国际旅游岛建设发展规划纲要(2010~2020))》를 비준함에 따라 해남성위원회 및 성정부는 동년 7월 '해남국제관광섬건설지도위원회' 및 '해남성관광규획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남성 국제관광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발전목표

2015년까지 관광관리·마케팅·서비스·상품개발 등의 시장화 및 국제화 수준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관광산업의 규모·품질·성과를 명확히 제고한다. 해남도 방문 국내의 관광객 476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총수입 540억 원, 관광산업의 해남성 생산총가치의 9% 이상을 달성하여, 지역내 3차산업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에는 관광서비스·시설·경영관리·서비스 수준 등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광서비스 표준에 도달하게 하여 해남관광의 국제적 인지도를 극대화시키고, 세계 일류수준의 섬휴양관광지의 기초단계를 완성한다. 2020년에는 국내외 관광객 7680만 명을 유치하고 관광총수입 1240억 원, 관광산업의 해남성 생산총가치의 12% 이상 달성 및 3차산업의 비중을 60% 이상으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남국제관광섬건설 포지셔닝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혁신과 창의의 실험지 둘째, 세계적인 일류 도서(島嶼) 휴양리조트 관광목적지 셋째, 중국 내 생태문명건설 시범지 넷째, 국제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주요 플랫폼 다섯째, 중국 남해 자원개발 및 서비스의 기지 여섯째, 국가열대현대농업기지 등으로 포지셔닝한다.

〈표 III-4〉 해남도 국제관광섬건설 주요 경제지표 발전목표

지 표 명	2009년	2012년		2015년		2020년	
		절대치	년평균 성장률	절대치	년평균 성장률	절대치	년평균 성장률
지역총생산액(억 원)	1646.6	2376	13%	3430	13%	6900	15%
1인당 생산총액(元)	19166	26930	12%	37835	12%	72850	14%
도시주민인당 처분소득(元)	13751	19320	12%	27140	12%	48900	12.5%
농민인당 순수소득(元)	4744	6665	12%	9620	12.5%	17720	13%
관광객수(만명/일)	2250.33	3160	12%	4760	14.6%	7680	10%
관광수입(억 원)	211.72	314	14%	540	20%	1240	18%
관광산업증가치 비중	6.4%	7.5%		9%		12%	
3차산업증가치 비중	45%	47%		50%		60%	
3차산업종사인구 비중	34.6%	39%		45%		60%	

자료 : 海南旅游政务网(<http://tourism.hainan.gov.cn>)

2) 국제관광섬건설 공간배치 및 인프라 건설계획

해남성 국제관광섬 발전전략에 따른 국제관광섬개발 공간배치는 다음과 같다.

①북부지구(北部组团): 해구(海口)시를 중심으로 文昌과 定安, 그리고 澄迈 등 3개 시현(市县)를 포함하며 면적은 7965km² 이고 해남도 면적의 23.37%를 차지한다. 문화오락·회의전시·상업음식·골프레저·금융보험·교육·부동산등 현대화 서비스업과 자동차제조·의약품제조·음식 가공·고기술등 산업을 중점으로 개발한다. 조건에 따라 집중적으로 특색관광상품·축제·전시·스포츠 등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킨다.

②남부지구(南部组团): 삼아시를 중심으로 陵水和 保亭, 그리고 乐东 등 3개 시현, 총 면적은 6855km² 이고 해남도 면적의 20.41%를 차지한다. 호텔숙박, 오락, 레저, 음식 등 산업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다. 시장수요에 따라서 특색관광상품, 축제, 전시, 스포츠등 관광상품을 적절하게 발전시킨다. 삼아시를 열대해변관광명소지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열대 해변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다. 삼아시 열대관광목적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과 바다를 서로 결합해서 주변지역을 발전시킨다.

③중부지구(中部组团): 五指山, 琼中, 屯昌 그리고 白沙 등 4개 시현, 약 7184km² 이고 해남도 면적의 21.04%를 차지한다. 보호와 개발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열대 우림과 수자원 보호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열대 특색농업, 임업경제, 생태경제, 민속관광, 도시서비스, 민속공예품 제조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국가급산림공원과 여족·요족문화관광프로젝트를 중점으로 건설한다.

④동부지구(东部组团): 琼海과 万宁를 포함하여 약 3576km² 이고 해남도 면적의 10.49%를 차지한다. 해변관광업, 열대특색농업, 해산물업, 농산품가공업 등을 주로 개발하고, 조건에 따라 특색관광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수행하여 문화산업의 집결지로 발전시킴으로서 보아오를 세계수준의 국제 회의센터로 만든다.

⑤서부지구(西部组团): 儋州, 临高, 昌江, 그리고 东方 등 4개 시현과 洋浦경제개발구를 포함해서 약 8407km² 이고 해남도 면적의 24.66%를 차지한다. 洋浦경제개발구 등 공업원구를 배경으로 항구공업 및 고기술산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儋州를 해남도 서부지역 중심 도시로 건설한다. 东坡문화공원을 계획하고 건설하여 생태관광, 탐험관광, 공업관광, 해변관광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한다.

⑥해양지구(海洋组团): 해남성수권관할(授权管辖)해역 및 西沙, 南沙, 中沙군도를 포함한다. 해양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해양어업과 해양운송업을 확대하고, 해양 자원을 적극 개발·건설하여 해양관광산업 격려하여 발전시킨다. 해양생태환경 보호를 기본으로 하여 특색 있는 해양관광 프로젝트를 높은 수준으로 기획하고 수행한다.



[그림 III-1] 해남국제관광섬 기능별지구 및 중점관광풍경지(리조트) 공간배치도

자료 : 海南旅游政务网(<http://tourism.hainan.gov.cn>)

뿐만 아니라, 국제관광섬으로의 도약을 위한 접근성을 대대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편리, 신속한 종합교통운송시스템을 추진한다.

첫째, 해남도의 접근성 강화 : 경주해협(琼州海峡:해남성-광둥성연결)을 통과하는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한다. 해구-광주(廣州) 및 해구-남녕(南寧)고속도로 건설을 가속화하고, 海口美蘭공항과 三亞鳳凰공항 확장 및 개조를 추진하고, 보아오(博鳌)공항의 건설을 추진하며 서부지역의 공항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항구건설을 위한 기초인프라 및 운송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洋浦, 海口, 三亞, 清瀾, 八所 등 5개의 중점 항구를 건설한다. 해양석유 전문부두와 서비스기지 및 국제크루즈 주요선착지를 건설하고 부두의 시설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선한다.

둘째, 해남도내의 교통망 강화 : 2010년도 말 동환철도의 운영을 시작하고, 2015년 말 서환철도 건설을 완성한다. 적절한 시기에 서선철도의 확장과 양포지선철도의 건설을 추진한다. 海口-五指山-三亞 연결고속도로와 万宁-儋州-洋浦 연결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田" 형태의 고속도로망을 건설한다. 2015년까지 섬일주고속철도를 기본적으로 완성함으로써 해남성 전체가 "2시간 관광교통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관광기초인프라 강화 : 해안관광도로 및 각 관광지와의 연결도로의 건설 및 개통을 신속히 추진하여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인다. 등산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점진적으로 건설하고, 캠프장시설의 건설 등을 가속 추진한다. 주요 해변관광도시의 요트선착장 등 해양스포츠관련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며 주요 관광도시와 대규모 관광휴양지에서 저행 주행차선시스템 및 기능시설 등을 건설하고 자전거·롤리(roller)·도보 등 전용도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킨다.

3) 관광마케팅전략 및 상품개발

해남도의 관광마케팅을 위하여 무엇보다 차별화된 관광목적지 이미지수립을 목표로 상품을 개발하고 성정부 및 성관광협회, 그리고 기업과 영업대리기관 등을 주체로 관광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첫째, 이미지포지셔닝(形象定位) : 해남도의 자원특징과 관광상품 특징에 따라 해남국제관광섬의 전체 이미지를 "뜨거운 태양, 레저천국 해남도(阳光海南, 度假天堂)"로 수립하고, 해남도 관광목적지 이미지를 강화하여, 국내시장에서 해남도를 국민 주요관광목적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외시장에서의 해남도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해변관광, 열대우림, 골프, 요트, 항공체험, 면세쇼핑, 온천 휴양" 등을 핵심관광매력물로 개발하여 해남도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한다.

둘째, 시장포지셔닝(市场定位): 해남도는 무엇보다 국내관광 시장개척에 중점을 두고, 인바운드관광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질서 있게 아웃바운드관광을 발전시킨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관광시장 마케팅전략을 실시한다. 국내 주요시장인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환발해만(环渤海湾)를 비롯한 홍콩·마카오·대만(港澳台) 및 국외 러시아(俄罗斯), 한국, 일본, 동남아 등 기존 주요 관광시장에서의 마케팅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중도시 및 중앙아시아, 북유럽, 서유럽, 호주 등 시장을 적극 개척한다.

셋째, 시장개발전략(市场开发策略): 관광시장마케팅경로를 구축한다. 국내외 주요 관광객 송출지역에 점진적으로 해남관광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대형관광기관과 협력하여 관광마케팅대리네트워크를 설립한다. 연합시장마케팅전략을 실시하여 관광행정관리부문, 관광협회, 언론매체, 항공사, 관광지, 휴양지 등을 포함한 관광마케팅연맹(旅游营销联盟)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투자 및 관련기업의 마케팅경비 등을 출연한 관광마케팅전용기금(旅游促销专项资金)을 설립한다. 새로운 마케팅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언론 및 인터넷매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를 위하여 최근에는 해구(海口)와 화북, 화동, 화남, 서남지역의 대표적인 매체인 북

경 《新京报》, 상해 《新民晚报》, 광주(廣州) 《华南都市报》와 성도(成都) 《成都商报》 등과 정식으로 관광합작협정을 맺었으며, 이들 지역에 해남관광국내연락처를 설립하였다.

〈표 III-5〉 해남성 중점관광상품 개발

상 품 종 류	중 점 개 발 내 용
1.휴가리조트관광상품	해변, 온천, 산림 중심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고품격 리조트 개발
2.해양관광상품	해수욕장, 해남도일주, 섬탐험, 해양스포츠, 잠수, 낚시, 휴양어업, 해저관광, 원양(远洋)여행 등 개발
3.스포츠 및 레저상품	골프장건설, 마케팅혁신, 국내외주요골프대회유치, 골프관련용품개발 등
4.요양및휴식상품	온천요양, 중의보건치료, 의료관광, SPA마사지관광, 성형미용 등의 특화된 보건요양기지로 개발
5.비즈니스컨벤션상품	컨벤션시설 건설, 대표적인 국제회의 및 박람회 등의 육성
6.민족풍습및문화관광상품	해남성 원주민인 소수민족 여족(黎族)·요족(苗族)문화역사문화해양문화화교문화 등을 주제로 한 일련의 문화축제개발
7.홍색관광상품	琼崖군대와 홍색낭자군의 혁명전통을 드높이는 홍색관광정통관광지개발
8.휴양농원및농촌관광상품	관광농촌 및 휴양농업 시범지 건설, 농가악(農家樂), 어가악(漁家樂), 농촌 생활체험 등 관광상품개발
9.열대밀림등특색관광상품	자연보호구역산림공원 건설 강화, 생물다양성보호및생태관광발전, 항공공원해양공원야생동물공원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기자화산지질공원습지 공원 등 건설
10.자유여행상품	캠핑카자동차자전거자도보여행 등의 시범지구 개발 및 서비스체계 구축

자료 : 海南旅游政务网(<http://tourism.hainan.gov.cn>)

〈표 III-6〉 해남성 주요 문화관광축제

축제종류	세 부 내 용
중국해남도환락절	중국해남도환락페스티벌(中国海南岛欢乐节)을 해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축제로 개발 및 육성
전통문화류	해남도 무형유산인 여족요족의 “三月三”축제, 경극(琼劇), 여족요족의 가무, 담주조성(儋州调声), 임고인형극(临高人偶戏) 등
지방특색문화류	해구환화페스티벌(海口换花节), (洗夫人文化节) 축제 등 활동
유행문화축제류	신실크로드모델결선대회, 삼아천애해각국제웨딩페스티벌(三亚天涯海角) 개최, 국제규모의 미인선발대회, 음악축제, 예술축제, 영화축제, 미술 및 사진대회 개최 추진
지역특산전시류	해남성의 특산 과일화훼수산물 등의 전문 전시회 및 마케팅활동 개최

자료 : 海南旅游政务网(<http://tourism.hainan.gov.cn>)

3. 해남국제관광섬건설 최근 추진현황

1) 각종 우대정책의 실시

해남성 정부는 2010년 8월 12일 《해남도방문외국인관광단체무비자서비스및관리법(外国人免签证来琼旅游团服务和管理办法)》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신규 5개국 관광단체에 대한 무비자정책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 27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해남성방문외지관광객쇼핑세금환급정책시범실시공고(关于在海南开展境外旅客购物离境退税政策试点的公告)》를 통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세금환급제도(离境退税)』를 공식적으로 실시하였다. 해남성내 3대 백화점(海口民生百货, 民生百货, 三亚夏日百货)을 시범 실시점으로 지정하고, 관광서비스안내센터 및 국제호텔 등을 중심으로 중영·러·독일한 등 6개 국어로 된 <외지관광객쇼핑세금환급제도안내서>를 배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면세정책(离岛免税) 방면으로는 2011년 3월 23일 세관총서에 의해 발표된 《해남성방문외지관광객의면세쇼핑에대한중국세관의감독관리임시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海南省离岛旅客免税购物监督暂行办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부터 해남도에서 면세쇼핑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해남도는 일본 오키나와, 한국 제주도, 대만의 금문도와 마조도에 이어 면세쇼핑 섬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남도 쇼핑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2) 관광인프라건설

2010년 해남국제관광섬건설지도그룹과 해남성관광규획위원회는 해남우주테마파크(海南航天主题公园), 능수해양테마파크(陵水海洋主题公园), 장영해남세기영화테마파크(长影海南世纪城), 만녕아울렛쇼핑몰(万宁奥特莱斯大型购物中心) 건설사업 등 중점관광프로젝트를 심사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남우주테마파크는 2010년 12월 5일 착공하여 2014년 초 완공예정이며, 만녕아울렛은 2012년말 완공예정이다. 또한 능수해양테마파크는 2011년 3월 30일 착공되어 2014년 완공예정이며, 장영해남세기영화테마파크는 2011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점관광건설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향후 해남관광의 핵심경쟁력 및 관광발전수준은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현재 해남성정부는 삼림관광실험자삼아시해당만환상불야성오락프로젝트(三亚海棠湾梦幻不夜城娱乐项目)·화강유락프로젝트(华强游乐项目) 및 사파리파크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海棠湾清水湾石梅湾铜鼓岭龙沐湾棋子湾 등에 5성급 이상의 고품격 관광지 및 리

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아오천국마을(博鳌天堂小镇)·화유희망마을(华润希望小镇)·복산커피마을(福山咖啡小镇) 등 독특한 풍취를 가진 민족특색 마을을 건설할 예정이다.

3) 기타

해남성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및 안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 정부에서 2000만 원(한화 36 억 원)을 투자하고, 2~3개 이상의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대형여행사를 육성하고 5개 이상의 국내에서 유능한 대형여행사 및 1~2개의 외국인투자여행사를 유치한다. 또한 최소 1개의 외국인 투자합작여행사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해남성 주민의 아웃바운드관광을 경영하도록 한다.

인력개발 및 교육훈련에 있어서 2011년 세계관광기구(WTO)와 협력하여 해남성내 관광관련 공무원 및 관광업계 인력에 대한 해외현지교육훈련을 운영한다. 2011년 8월 30일 스페인 현지교육훈련반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발리 등지에서 향후 2년 동안 해남성 전체 시현(市縣)의 관광부문행정담당자에 대한 해외현지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4. 평담도(平潭島) 관광산업 발전계획 및 추진현황

평담도는 중국대륙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자 복건성내 최대의 섬으로 육지면적은 371.91km², 해양면적은 약 6064km²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복건성 복주시 관할의 평담현(平潭縣)으로 크고 작은 섬 126개 이루어졌으며 2011년 현재 총 인구는 약 40만 명(정주인구 13만명 포함)이 거주하고 있다. 평담도의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1848.85km²)의 약 1/5 정도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평담도는 대만과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국지역으로서 대만의 신죽항(新竹港)까지 약 126km² (68해리)이고 복건성의 성회인 복주시(福州市)까지 약 120km²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2010년 11월 30일 지역일체화건설전략을 통하여 복건성 복청(福清)시 지역과 평담현까지 3510m에 이르는 연륙교 평담해협대교 개통 및 평담고속도로·경대철도·섬의 일주도로·항구 등을 건설하여 해운·철도·항공으로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일체화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1) 관광정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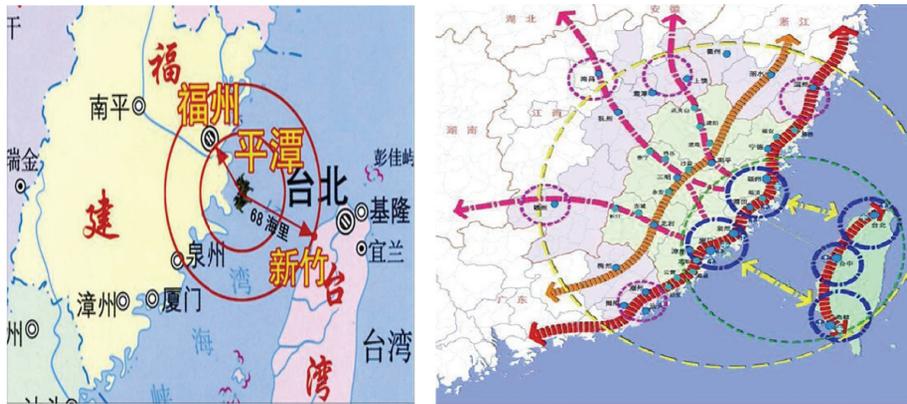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9년 5월 발표한 《해협서안경제 건설 가속화를 위한 복건성 지지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支持福建省加快建设海峡西岸经济地的若干意见)》에서 대만과 중

국 대륙을 두고 흐르는 해협의 서부지역(海峡西岸)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그리고 발해만 경제지역에 이어 중국의 4대 경제개발지역이 될 것이며, 특히 복건성을 '해협서안경제지역'으로서의 개발을 지지하는 내용을 건의하여 향후 해협서안전략이 국가급 개발전략지역으로 급상승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했다.

해협서안경제구역(海峡西岸经济区; 약칭海西)은 대만해협(臺灣海峡)의 서안지역을 의미하며 주로 대만과의 경제협력 및 해협양안의 통일을 위한 대비 및 교류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복건성 정부에서 민남금삼각주(闽南金三角)의 개념으로 해협서안경제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10·5 발전규획기간(2006~2010년)에 국가급 중점전략지역으로 채택하여 향후 10~15년에 걸쳐 완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중국 복건성(福建省)의 福州, 厦门, 泉州, 漳州, 龙岩, 莆田, 三明, 南平, 宁德 등 9개 도시를 중심으로 절강성(浙江省) 남부의 温州, 丽水, 衢州와 강서성(江西省)의 上饶, 鹰潭, 抚州, 赣州 및 광둥성(广东省) 동부의 梅州, 潮州, 汕头, 揭阳 등 총 20개 도시 약 6000만~8000만 명, 17000억 원 이상의 경제규모를 목표로 발전하고 있는 경제구역이다.

이러한 해협서안지역개발전략 거대구상 가운데 복건성 평담현 즉, 평담도(平潭岛)는 특히 "해협양안합작을 위한 통일대비 시범섬화 탐색" 지역으로 지명되어, 2010년 7월말 《평담종합실험구총체발전계획(平潭综合实验区总体发展规划)》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획에는 평담실험지구를 "중국의 중요 자연및문화관광지 건설"을 목표로 하여, 특히 해협서안경제지역건설을 위한 4대전략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관광업을 평담종합실험지의 중점발전산업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海峡西岸经济区

2) 평담종합실험지구발전규획(平潭综合实验区总体发展规划) (2010-2030)

2009년 5월14일 《해협서안경제 건설 가속화를 위한 복건성 지지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支持福建省加快建设海峡西岸经济地的若干意见)》 정책 발표이후, 복건성위원회 및 성정부는 『복건(평담)종합실험구(福州(平潭)综合实验区)』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海西지역 선행실험의 중요한 착수지이자 돌파구이며 대만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탐색해보는 선행실험지로서의 새로운 모형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평담종합실험구관리위원회가 공식 설립되었고, 2010년 7월말 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평담종합실험지구총제발전규획》을 국무원에서 정식 비준을 획득하였다.

해협양안 평담종합실험구의 발전을 위해서 2011년에는 약 300억(한화 5조4000억원)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투자되며, 향후 3년 동안 총 1000억(한화 1조8000억원)을 투자하여 관련 기초인프라시설을 건설할 것이다.

본 총제발전규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2030년까지로 하며, 규획의 공간범위 평담현(平潭县)내 15개향진(乡镇: 潭城、苏澳、澳前、屿头、大练、白青、平原、芦洋、中楼、流水、东庠、岚城、北厝、敖东、南海 等)을 포함한 행정지역, 총 392.92km²의 육지 면적을 계획하고 있다. 2030년 완성무렵에는 평담현의 인구가 현 40만에서 100만으로 증가하는 살기 좋은 신흥 생태 섬도시가 되는 것이다.

1단계 전면개발단계(2009~2020년): 첨단 과학기술과 현대 서비스산업 위주로 개발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협력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며, 해협양안(海峡两岸; 대륙대만을 지칭)의 특색을 갖춘 합작산업체제로 기본토대를 형성한다; 비즈니스·교육및문화(商务文教), 항구경제무역(港口经贸), 관광레저(旅游休闲) 등 기능구역의 기본형태 완성, 공공서비스 수준의 현격한 제고, 현대화된 신흥 섬지역으로서의 기초모형을 구현한다.

2단계 발전완성단계(2021~2030년): 1단계 20년간의 규획 및 발전노력을 통하여 편리한 교통, 선진적 기초인프라의 구축, 우수한 생태환경을 갖춘 생활하기 좋은 해협양안 인민의 공동가정과 해협서안의 생태환경이 우수한 살기 좋은 섬으로서 기본형태를 완성한다.

3) 포지셔닝전략

향후 평담도는 대만과 가장 근접하다는 지리적 강점과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해협양안 지역협력 및 과학적 발전추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포지셔닝전략을 구사한다.

첫째, 해협양안 협력의 새로운 모형 실험지: 유연하고 다양한 합작방식을 통한 양안 공동건설을 채택하여 합작계획개발·공동수익 등을 이룬다. 양안 경제무역의 긴밀한 협력, 융합발

전 등을 통하여 양안간 직접왕래의 중요하고 신속한 통로를 구축함으로써, 양안의 교육 및 문화교류 협력 선행 실험지로서 미래 양안협력 국제관광섬 및 양안무역특구로 자리매김한다.

둘째, 해협서안경제특구 과학발전의 선행지: 개혁과 혁신의 역량을 증대하여 통관제도·과학 기술관리체계·발전방식의 혁신을 창출한다. 대만인의 평담도 취업, 거주 및 자유왕래 등에 대한 편리제공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협서안경제구역 건설을 위한 “과학발전 및 선행실험” 경험을 창조한다.

셋째, 복건성 성회(省會:복주) 중심도시로의 부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규모를 확대 하며, 기능향상 및 환경미화의 요구 부응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구 및 경제의 집중도를 제고함으로써 해협서안 연안도시화의 국면에 새로운 성장점이 되도록 발전한다.

4) 주요임무

《평담종합실험지구총제발전규획》에 따른 평담종합실험구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양안협력의 특수세관구역(海矣特殊监管区域) 건설: 통관제도·검사감독의 방법을 혁신하여 특수한 세관감독관리구역 및 조세와 외환관리정책 등을 실시하며 양안 투자 및 무역, 인적 왕래의 편리성을 제고한다.

(2)양안지역 협력플랫폼(platform) 건설: 평담도에서 해협서안경제구역건설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가속 실행함으로써, 양안간 지역협력을 위한 종합실험지를 만든다. 개방적인 산업 정책을 실행하고, 양안의 산업을 심도 있게 연결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협력개발 및 공동수익을 실현한다.

(3)해협양안 직접왕래 새로운 신속통로 건설: 교통망 발전을 선행하여 양안간 해상여객 및 화물선 정기항로를 개통한다. 해협양안의 교량터널에 대한 기초연구 및 막힘이 없는 교통운송체계를 구축한다. 중계무역과 국제운송을 발전시켜 대만 주변지역 및 중서부 내륙지역의 물류종합 통로로 발전시킨다.

(4)관광산업 및 무역비즈니스 등 서비스산업의 중점산업구조 건설: 서비스산업 발전을 새로운 강점으로 구축하여, 대만의 물류·무역·중개서비스 등 선진적 서비스업분야를 노하우를 적극 계승 접목하여 최첨단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현대적인 산업체계를 건설한다.

(5)과학적 발전에 유익한 체제 건설: 과학기술의 혁신을 핵심으로 개방형지역혁신체계를 건설한다.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자주혁신 및 자주창업이 적합한 종합적인 도시환경을 창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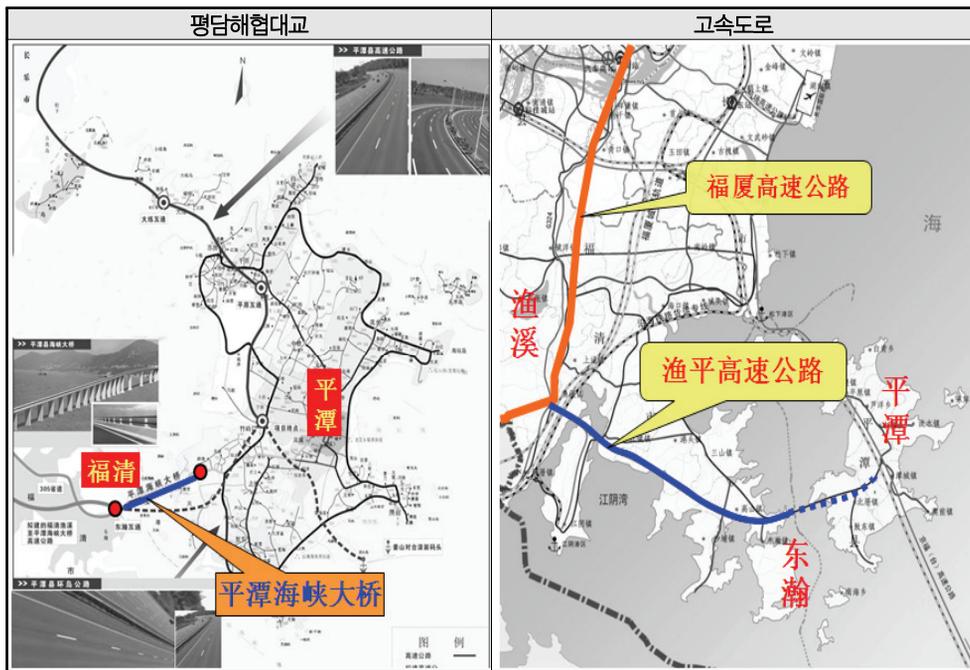
(6)생태원림도시(生态园林城市)의 건설: 잦은 태풍으로 기상환경이 열악한 평담도의 방재체계

(防風固沙林)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삼림경관의 배치를 강화한다. 해양과 해안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종합적 효율적 이용을 강화한다. 저투자·저소비·저배출·고효율의 경제발전방식으로 현대적 생태형 섬도시(海島城市)를 건설한다.

5) 세부발전계획

(1) 평담종합실험구 교통망건설 계획

해단해협(海坛海峡), 대만해협(台湾海峡), 해단섬(海坛岛), 대만(台湾)을 총망라하는 해협섬 대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중국본토에 정박하고 대만과 연결되는(靠泊大陆, 连接台湾)” 교통망을 이룬다. 평담해협대교(平潭海峡大桥)·어평고속도로(渔平高速公路)·경관대로(景观大道)·섬일주도로(环岛公路)·대형물류항구·양안여객맞이물터미널 등을 건설하고 도시간 경전철 및 京福台(북경·북경성·대만)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준비계획을 실시한다.





[그림 III-2] 평담종합실험구(平潭综合实验区) 대교통망 건설계획

자료 : 中国平潭综合实验区地管委员会网(www.pingtan.gov.cn.)

(2) 공간배치 발전계획

평담도 지역의 자연조건·위치적인 장점·생태환경 등에 따라 평담도를 『4대구역 11개지구(四区、十一组团)』로 세분하여 기능에 따른 공간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①중심상무구역(中心商务区): 평담도의 주섬인 해단섬(海坛岛)의 중부지역인 남성지구(岚城组团)、죽여지구(竹屿组团)、담성지구(潭城组团) 등을 포함한다. 남성지구와 죽여지구는 비즈니스국제회의센터, 금융보험, 행정서비스센터, 호텔 및 식당, 쇼핑레저, 생활거주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그 중 평담컨벤션센터(平潭会议中心)는 남성지구의 남쪽에 위치하고 총 건설면적이 66,597m² (컨벤션센터 및 호텔)으로 총 5억원(한화 약 900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담성지구는 현 구도심으로서 주변 노후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도심의 비즈니스관련서비스 및 의료·생활거주관광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②항구경제무역구역(港口经贸区): 주섬의 동남·서남부에 위치하고 금정만지구(金井湾组团)、길조항지구(吉钓港组团)、오전지구(澳前组团) 등을 포함한다. 금정만지구는 대만쇼핑거리, 대

만명품면세거리, 대만음식거리 및 경관비즈니스구역, 수경(水景)주택 등을 건설하여 대만특색을 반영한 고품격의 해변상업비즈니스지구를 구축한다.

특히, 금정만(金井灣)의 사방공사에 총 6억(한화 1080억원)을 투자하고, 대만의 생태 및 창의적 관리기술교육인재 등 우수한 자원을 도입해서 현대화된 해안생태도시건설 항목인 “해협여의성(海峽如意城)”에는 3년간 총 150억(한화 2조7500억원)을 투자 완공할 계획이다. 길조항지구는 대만과의 화물운송해운부두를 기반으로 국가일류급개방항구 및 양안협력을 위한 세관특수관리구역으로 기획하여 보세가공, 보세물류, 화물운속대리, 중계항구 등으로 적극 발전시킨다. 오전지구는 대만과의 여객운송부두로써 중심어항(漁港)을 기반으로 상무비즈니스, 수산물가공 및 대만특산농산품교역센터 등을 건설한다.

③과학기술교육구역(科技文教區): 주섬의 중북부에 위치하며 증원지구(中原組團), 평양지구(平洋組團), 행복양지구(幸福洋組團) 등을 포함한다. 그 중 증원지구는 전자정보통신, 해양생물, 친환경에너지, 최첨단기계장비 등 해협양안의 하이테크기술산업기지로 건설한다. 평양지구는 고등교육직업기술교육훈련문화창의산업 협력시범기지와 산업기술R&D 연구 및 응용기지를 구축한다. 행복양지구는 서비스첨단기술발전기지로써 지능(智能)특색을 지닌 지능화시범해변도시를 건설하고, 양안협력의 “저탄소지능시범신도시”를 구축한다.

④관광레저구역(旅游休闲區): 주섬의 동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단남만지구(坛南灣組團)와 해단만지구(海坛灣組團)를 포함한다. 단남만지구에는 고품격 리조트호텔, 국제보양휴양촌, 샌드클럽, 해양주제공원, 휴가리조트월드 등 국제적 관광명품 및 레저휴양풍경리조트지구를 건설하고, 해단만지구에는 천연해변모래, 국가급산림공원 등 자연자원에 기반을 둔 산·바다자연인문자원 등이 공존하는 고품격의 해변관광지 및 대중레저활동단지로 건설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두도(屿头島)에 고급주택단지(高尚住宅區) 및 생태국제촌(生态国际村) 건설, 대련도(大练島)는 선박산업섬으로 개발하고, 동상도(东庠島)는 해양목장섬으로, 초여도(草屿島)는 해상보급기지로, 당여도(塘屿島)는 고품격국제리조트섬 등으로 개발위한 기초작업에 진 입했다.



[그림 III-3] 평담종합실험구(平潭综合实验区) 공간배치 발전계획

자료 : 中国平潭综合实验地管委会网(www.pingtan.gov.cn.)

(3) 관광발전 세부계획

평담종합실험구의 관광산업 발전목표는 평담도 주변해역삼모라자연인문경관 등 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관광발전모델을 창조하고 대만 관광산업과 적극적 협력강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레저섬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양안 관광협력시범지를 적극 건설하고, 관광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건설한다. 또한 양안 다양한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하고 양안 공동의 해협관광브랜드를 창조한다. 또한 해협양안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해협관광의 차별적 요인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한 해양스포츠 및 관광레저 등의 관광상품을 중요 섬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킨다. 주변 지역과의 관광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관광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관광종사자의 서비스품질을 제고한다. 평담관광정보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관광마케팅을 체계화하고 관광행정관리 및 관광공공서비스체계를 개선한다.

평담종합실험구 지정이후 평담현 통계국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2만 명의 관광객이 평담도를 방문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평담해협대교 개통 후에는 북건성 이외의 타지역 관광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주말은 물론 거의 매일 단체관광객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름에는 주로 학생 단체와 교사 단체 및 개별관광객의 형태가 많았으며, 겨울에는 주로 중노년층 관광객의 방문이 많았고, 주로 강서성(江西省)과 절강성(浙江省) 관광객이 많았다. 또한 평담모래조각축제에 약 1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업의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어 관광호텔은 2010년 13개에서 2011년 50개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IV. 결론 :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제12차 5개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중국 국무원 및 국가여유국의 주요 정책방향 및 발전목표 등을 검토하고, 향후 중국민의 섬관광수요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중국 해남도와 평담도의 관광발전장기계획과 최근 추진현황 등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분석하고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미래 효과적인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2.5규획기간은 중국 관광소비시장 규모 및 니즈의 획기적 발전단계가 될 것이다. 중국은 제12차 5개년 발전규획(2011~2015) 기간을 통하여 중국민의 관광소비확대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 2015년에는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 관광활동 연 2회 이상으로 증가하도록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대 주요 관광정책 과제를 통하여 캠퍼카, 크루즈, 요트 등의 새로운 관광소비 이슈 창출하고, 관광레저관련장비제조업을 국가장려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등 갈수록 증대되는 중국민들의 다양한 관광레저수요를 적극 반영 진작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은 제주도 제1의 외래객시장인 중국관광시장에 있어서 해양 및 레저관광수요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미래 제주관광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12.5규획을 통해 나타난 중국정부의 섬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다. 12.5규획 기간동안 국가급 중점지역개발건설정책의 일환으로 해남성(海南省) 해남국 제관광섬건설 및 해협서안의 북건성 평담도(平潭島)자연및문화관광중심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정책은 중국시장을 겨냥한 제주도의 대중국 관광시장매력도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전면적인 대응전략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제관광섬건설 위한 해남도 및 평담도의 대대적 관광인프라 확충이다. 해남도는 고 급숙박시설 및 리조트 시설확충을 통하여 총 40여 개가 넘는 특급호텔을 확보할 예정이며, 요트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해구만미원(海口湾美源)마리나, 신부도(新埠島) 및 아홍주 국제요트회(亚鸿洲国际游艇会) 마리나시설 등 총 330척 정박 규모의 마리나시설을 보수건설 하고 있으며,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해구(海口)시에 10만 톤급의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확충 건설하고, 골프관광 특화관광지건설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평담도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2011년에 약 300억원(한화 5조4000억원), 향후 3년 동안 총 1000억원(한화 18조원)을 투자하여 관련 관광 관련 기초인프라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총체발전규획(2009년~2030년)이 완성되는 2030년에는 평담현의 인구를 현 40만에서 100만으로 증가시키는 등을 목표로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중국정부의 건설 노력은 지지부진 담보상태에 있는 현 제주도의 숙박항공항구 등 관광인프라 관련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성제고 노력이다. 주로 항공을 통해 방문하는 2010년 현재 2500만명 정도의 내륙 국내관광객 시장을 2015년 4000만명 이상 배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접근경로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주해협(琼州海峡: 해남성-광둥성연결)을 통과하는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해구-廣州 및 해구-南寧연륙고속도로 건설을 가속화하고, 海口美蘭공항과 三亞鳳凰공항 확장 및 개조를 추진하고, 보아오 공항 건설 추진 및 서부지역의 공항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개 지역에 추가 항구건설을 위한 기초인프라구축 및 운송시스템을 강화하고, 2015년까지는 섬내 일주고속철도를 완성함으로써 "田字型 2시간 관광교통망"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평담도 역시 대만과의 직접왕래를 위한 새로운 접근통로 확충 건설을 위하여 해상여객 및 화물선 정기항로를 개통하고, 평담해협대교(平潭海峡大桥)·어평고속도로(漁平高速公路)·경관대로(景观大道)·섬일주도로(环岛公路)·대형물류항구·양안여객 및 화물터미널 등 건설 및 도시 간 경전철 및 京福台(북경·북건설·대만)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준비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 제주관광발전을 위해 접근성에 관련한 중언부언이 필요 없는 중요한 정책사안이다. 저가항공 개설로 인하여 다소간의 내도 접근성은 개선이 되었으나, 입도한 관광객들의 도내 관광활동에 위한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세심한 노력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 국내 섬관광수요에 대한 지역별 마케팅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해남성 여유국(旅遊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해남도 방문객 중 24시간이상 체류관광객(過夜遊客)수

는 총 2587.34만 명으로 그 중 국내관광객수는 2521.03%만 명, 인바운드관광객은 66.31만 명이며 이 가운데 홍콩마카오대만동포 방문객을 제외한 순수외래객은 2% 정도에 해당하는 47.38만 명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해남도의 절대적 핵심마케팅 대상지역은 중국 내륙시장으로 향후 2020년 7680만명 해남성 관광객유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내 주요내륙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환발해만(环渤海湾) 등 주요시장에 대한 마케팅활동강화를 위하여 북경, 상해, 광주및 성도(成都) 등지에 해남관광국내연락처를 설립하였다.

평담도는 종합실명구 지정이후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2만 명의 관광객이 내도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평담해협대교 개통 후 기존 복건성 관광객 위주의 국내시장이 강서성과 절강성 등지로 확대되어 타지역 관광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주말은 물론 거의 매일 단체관광객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쾌속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해남도 및 평담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내 섬관광에 대한 수요는 중국정부의 해양관광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반영과 지원으로 향후 가히 폭발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며 제주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2020년 1700만명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시장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해남관광 국내시장 발전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주요 관광시장인 북경상해광동성 등지 이외에 내륙의 사천성 및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는 동북 3성지역의 섬관광수요도 상당수에 이르는 점 등을 예의주시하여 향후 제주도의 대중국관광시장 지역별 세부마케팅 전략에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 국내 섬관광수요에 대한 계층 및 시장별 및 마케팅전략에 대한 강화노력이다. 최근 해남성 방문관광객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반수인 64.6%가 개별관광객이자 해남성의 주요 관광시장으로 나타났다. 2011년 평담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시장 및 계층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름에는 주로 학생 단체와 교사 단체 및 개별관광객의 형태가 많았으며, 겨울에는 주로 중노년층 관광객의 방문이 많았다. 이러한 개별관광객 중심의 여행시장변화에 대하여 해남도는 최근 해남성 전체의 관광안내 표지판을 개선하는 작업에 2000만(한화 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시장흐름에 대처하고 있다.

미래 제주도는 중국 개별관광객들이 수시로 안전하고 안락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야말로 '자유섬'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한 정책당국의 보다 전향적이고 총체적인 시장지향의 사고와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차별화된 섬관광목적지 이미지지수립 및 상품개발에 대한 노력이다. 해남도는 세계적

인 일류관광섬건설을 위해 전제되는 차별화된 관광목적지브랜딩을 위하여 통일된 관광목적지 이미지수립 및 포지셔닝, 관광상품개발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해남성 정부 및 성관광협회, 그리고 기업과 영업대리기관 등 관광관련 주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관광마케팅체계를 통하여, "뜨거운 태양, 레저천국 해남도(阳光海南, 度假天堂)"로 해남도 관광목적지이미지를 강화하고, "해변관광, 열대우림, 골프, 요트, 항공체험, 면세쇼핑, 온천 휴양" 등을 핵심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해남도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평담도는 미래 해협양안의 통일을 대비한 실험섬이자 양안협력의 국제관광섬을 발전목표로 한 관광목적지 이미지개발에 집중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의 차별화된 관광목적지 이미지수립을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할 수 있는 고민들은 모두 총동원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제주도가 평화섬인지, 국제자유도시섬인지, 7대 자연경관섬인지 등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수립하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적합한 이미지수립을 위한 총체적 정책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라 사료된다.

여덟째, 과감한 행정규제 개혁 및 유연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신속한 대처이다. 세계적인 일류관광섬건설을 위하여 해남성 정부는 2010년 8월 《해남도방문외국인관광단체무비자서비스 및관리법》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신규 5개국 관광단체에 대한 무비자정책을 확대 실시하였다. 동년 12월 《해남성방문외지관광객쇼핑세금환급정책시범실시공고》를 통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세금환급제도(离境退税)』를 정식 실시하였고, 2011년 3월 23일 세관총서에 의해 발표된 《해남성방문외지관광객의면세쇼핑에대한중국세관의감독관리임시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해남도 면세쇼핑정책을 시행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섬을 건설하고 있다.

평담도는 대륙대만 양안협력의 특수세관구역(海矣特殊监管区域) 건설을 위하여 과감하게 통관제도검사감독의 방법을 혁신하고, 주요마케팅 대상인 대만인에 대한 평담도 취업, 거주 및 자유왕래 등에 대한 편리제공 위한 착지비자 제도 실시, 이주조건 등에 대한 유연한 법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122개의 법률과 관련한 3839건의 권한기준절차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지만 이에 대한 과감하고 효과적인 활용 및 대처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미래 제주관광발전에 중국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회주의시스템 중국의 최근 관광시장에 대한 과감한 정책접근을 고려할 때 중국인에게 보다 나은 제주, 더 찾고 싶은 제주, 아주 가서 살고 싶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

〈참고문헌〉

- 정기은(2010), "중국 아웃바운드시장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중국관광객 유치 전략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제48권, pp. 525~540.
- _____ (2011), "中国海峡两岸平潭综合实验地旅游发展战略 ; 중국 해협양안 평담종합실험지의 관광발전전략", 『관광레저연구』 제23권 4호, pp.479~503.
- _____ (2011), "2011년 중국의 주요 문화관광정책", 『Webzine Culture & Tourism 문화관광』, 2011년 3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59~74.
- 中国国务院(2009), 关于支持福建省加快建设海峡西岸经济区的若干意见 (国发24号文件) .
- 中国福建省旅游局(2010), 『平潭旅游开发开放研讨会背景资料』 .
- 中国福建省发改委(2011), 『2011年新增长地域发展战役实施方案』 .
- 中国平潭综合实验地管委会(2010), 『平潭综合实验区总体规划(2010-2030)』 .
- 海南省旅游发展委员会(2011), "海南国际旅游岛建设进展情况和下一步工作重点".
- 中国国务院 , www.gov.cn .
- 中国国家旅游局网 , www.cnta.com .
- 中国福建加快建设海峡西岸经济地网 , www.fujian.gov.cn.
- 中国平潭网, <http://www.pingtan.gov.cn>.
- 中国平潭综合实验地管委会网 , www.pingtan.gov.cn.
- 海南旅游政务网, <http://tourism.hainan.gov.cn>.
- 海南省统计局 , <http://tourism.hainan.gov.cn>.